

강후구(서울장신대)

1. 머리말

지난 2017년 12월 6일 트럼프 미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며 미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공포하였다. 이에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일부 아랍권 나라들은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에 정치적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예루살렘이 다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지로 부각된 가운데 ‘예루살렘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가 관심을 받게 되었다.¹⁾ 이는 예루살렘이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살펴 보게 한다.

1) 지난 2018년 2월 19일 건국대학교에서 한국이스라엘연구소/학회 주관으로 ‘예루살렘, 누구의 도시인가?’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본 연구는 이 세미나에서 ‘예루살렘: 고고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필자가 발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논문 발표 이후 2018년 5월 14일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

예루살렘은 성서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가 개시된 이래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내 어느 장소보다 고고학적 연구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졌었다. 예루살렘이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의 수도로서 정치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시온 신학을 태동케 하였던 모태로서 신학적 중심지였기에 이러한 고고학적 연구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서고고학계내의 실정에 반하여²⁾ 국내의 예루살렘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취약함에 따라³⁾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적 연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구약 시대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이와 아울러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바뀌었다면 언제 바뀌었는가? 주인이 바뀐 이후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가?' 등을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2. 예루살렘의 등장과 연속된 정착 활동

구약성경에 예루살라임(Yerushalaim) 또는 예루살렘(Yerushalem/Jerusalem) 형태로 쓰여진 도시의 이름은 성경 외적자료에도 그 이름이 등장한다. 예루살렘은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이집트 제 12-13왕조 때의 (주전 20-19세기) 역사자료인 '저주 문서'에는 루살리무라는 이름 형태로 나타난다.⁴⁾

-
- 2) 이스라엘 내에서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지역의 발굴결과만을 바탕으로 매년 세미나를 열어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성서고고학계에서는 예루살렘과 관련된 분과를 열어 발굴 결과 보고와 고고학적 논의를 하고 있다.
 - 3) 국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에 대한 전반적인 고고학적 고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예루살렘의 크기에 대한 연구로 최현준, "예루살렘의 성벽 확장: 다윗에서 느헤미야까지", 『신학과 문화』 제 22집 (2013), 35-51; 주전 8세기경의 예루살렘의 도시 확장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고고학적 고찰로서 홍국평, "북이스라엘 난민 유입 가설 재고: 성서 문헌의 형성사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 3호 (2012년 9월), 181-206;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포로귀환 후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연구로 이창엽,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울(대상 9:35-38, 참조 대상 8:29-32)", 『구약논단』 20권 2호 (2014년 6월), 73-93가 있다.
 - 4) 앤슨 레이니/스티브 노틀리, 『성경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강성열 역), (서울: 이레서원, 2010), 63-

이후 약 오백 년 간의 공백 기간 이후 다시 역사에 언급되는데 아마르나 편지에 여섯 번에 걸쳐서 우루살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통치자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⁵⁾ 이로부터 다시 약 칠 백년 기간 이후 산헤립이 그의 연대기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혀 놓았다고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을 우루스림무 형태로 언급하고 있다.⁶⁾

이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성서에 나타난 이름이 성서 외적 자료에도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구약 시대 내 천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이름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형태를 지닌 채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름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불려지고 사용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경우 발굴의 결과 해석의 기본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는 장소지명 확인 작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불필요하다.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또 다른 단점을 낳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계속 정착해 왔기 때문에 그 만큼 고대 유적 파괴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심하며 또한 고대 유적지 위에 현대의 건물 또는 정착지가 위치하기 때문에 고고학적 연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

3. 예루살렘의 발굴 역사

구약성경과 관련된 예루살렘의 발굴은 1867년 찰스 워렌에 의하여 처음으로 탐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표 1은 간략하게 주요한 발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68, 72. 원제는 Anson F. Rainey/R. Steven Notley, *The Sacred Bridge* (Jerusalem: Carta, 2006).

5) 통치자의 이름은 압디-헤바(Abdi-Heba/Hiba, ((후리족 여신) 헤바/히바의 종)이다. W.L. Moran, *The Amarna Letters* (Batimore/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6) David Ussishkin,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1982), 15-16.

표 1. 예루살렘의 발굴역사

번호	발굴년도	발굴자	발굴지역
1	1867	찰스 워렌	오펠지역, 다윗성 동쪽
2	1867-1870	찰스 워렌	다윗성 남쪽
3	1873	클레몽 간노	다윗성 동쪽
4	1881	구테	다윗성 G 지역 남쪽
5	1894-1897	블리스, 딕키	다윗성 남쪽
6	1909-1911	파커	다윗성 기혼샘 주변
7	1913-1914	베이유	다윗성 남쪽
8	1923-1924	베이유	다윗성 남쪽
9	1923-1925	메칼리스터, 던칸	다윗성 북쪽
10	1927-1928	크로프트, 피츠게랄드	다윗성 서쪽
11	1961-1967	케스린 케년	다윗성 G 지역, 다윗성 남쪽
12	1978-1985	이갈 실로	다윗성 G 지역, 다윗성 동쪽과 남쪽
13	1968-1970	데이빗 우시쉬킨	실완 지역
14	1968-1978	벤야민 마자르	오펠 지역
15	1969-1982	나만 아비가드	예루살렘 구 시가지 유대인 구역
16	1979-1988	가브리엘 바르카이	케테프 한농
17	1986-1987	벤야민 마자르, 에일랏 마자르	오펠 지역
18	2005-2007	에일랏 마자르	다윗성 G 지역
19	2009-현재	에일랏 마자르	오펠지역
20	1995-현재	로니 라이히, 엘리 슈크론	다윗성 기혼샘 지역과 남쪽
21	2005-현재	가브리엘 바르카이	성전산 서쪽지역- 체질 작업
22	2007-현재	도론 벤암미, 야나 체카노비츠	기브아티 (다윗성 서쪽)

발굴역사를 통하여 살펴볼 때, 예루살렘 발굴은 몇 가지 특징을 이루고 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의 발굴은 비록, 고대 유적지 위에 현대에도 정착을 이루

고 있지만, 다른 어떤 장소보다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다.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의 기간 등의 주요 역사적 혼란기를 제외하고 예루살렘은 계속적으로 발굴되었다.

둘째, 예루살렘의 발굴은 정착지뿐만 아니라 무덤지역까지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드론 골짜기, 힌놈 골짜기, 티로포에온 골짜기로 인한 자연적 경계 지역과 더불어 이들의 발굴 결과는 각 시대에 따른 도시 크기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한다.⁷⁾

셋째, 예루살렘에서의 발굴은 유럽인들에 의한 발굴에서 이스라엘인들에 의한 발굴로 전환된 이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주로 성서의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외국인들의 예루살렘 발굴에서 1967년 6월 전쟁 때 예루살렘을 차지한 이후 자신들의 역사를 되찾으려는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인들의 예루살렘 발굴로 이동하면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유럽인들의 발굴은 케년을 제외하고 모두 발굴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반면, 이스라엘인들의 발굴은 장기 발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68년부터 1978년까지 이루어진 베야민 마자르의 발굴,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이루어진 나아만 아비가드의 서쪽 지역 발굴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로니 라이히와 엘리 슈크론의 다윗 성 발굴, 도론 벤암미와 야나 체카노비츠의 기브아티 발굴은 그 규모와 기간으로만 보아도 열편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예루살렘의 발굴 결과

예루살렘은 두 개의 주요 수원지(기혼 샘과 엔 로켈)를 바탕으로 주전 4천 년대의 석동기 시대부터 정착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예루살렘은 계속된 정착 활동이 이루어져 파괴된 지층의 시대 이전 시기의 정착 흔적들을 발견하기가

7) Hillel Geva, "Tombs", E. Stern (ed.)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3), 713-716.

매우 어렵다.⁸⁾ 따라서 언제부터 얼마나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인간의 정착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유적보다는 주로 유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발굴을 통하여 21개의 거주 지층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페르시아 시대의 층위인 지층 9까지이다.⁹⁾ 가장 초기의 유물은 후기 석동기 시대 (주전 4천년기 하반기)의 것이다. 바위 위의 컵 모양의 얇은 구덩이들과 함께 석동기 시대의 토기들이 발견되었다. 이 후 초기 청동기 시대의 채색 토기부터 후기 청동기 시대까지의 연속적인 물질문화가 곳

- 8) 강후구, 『성서와 고고학: 이스라엘 정착부터 시삭 침공까지』, (서울장신대 출판부, 2014), 31-32.
 9) Yigal Shiloh, *Excavations at the City of David I. 1978-1982. Interim Report of the First Five Seasons. Qedem 19*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84).

지층	시대	년대
1	마블록 시대-독립 전까지	주후 14-20세기
2	이슬람 시대- 아유비드 시대- 십자군 시대	주후 7-13세기
3A	비잔틴 시대	주후 6-7세기
3B	비잔틴 시대	주후 4-6세기
4	후기 로마 시대	주후 1-4세기
5	초기 로마 시대	주후 1세기
6	초기 로마 시대	주전 37- 주후 70년
7A	하스모니안 시대	주전 1세기
7B	하스모니안 시대	주전 2세기 하반기
8	헬라 시대	주전 4-2세기
9	페르시아 시대	주전 6-4세기
10A	후기 철기 시대	주전 6세기
10B/C	후기 철기 시대	주전 7세기 하반기-586년
11	후기 철기 시대	주전 7세기
12	후기 철기 시대	주전 8세기
13	후기 철기 시대	주전 9세기
14	후기 철기 시대	주전 10세기
15	초기 철기 시대	주전 12-11세기
16	후기 청동기 시대	주전 14-13세기
17	중기 청동기 시대 중기 (MB IIA-B)	주전 18세기
18A	중기 청동기 시대 중기 (MB IIA-B)	주전 18세기
18B	중기 청동기 시대 중기 (MB IIA-B)	주전 18세기
19	초기 청동기 시대 (EB II)	주전 29세기
20	초기 청동기 시대 (EB I)	주전 31세기
21	석동기 시대	주전 4천 년대 하반기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의 발굴에서도 알려지고 있다.¹⁰⁾

앞서 언급된 이집트의 저주 문서와 연관된 중기 청동기 시대에는 기혼 샘 수 원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돌로 건설된 성벽과 망대가 발견되어, 비록 이 시기의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떠한 세력을 지녔는지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가나안 도시들의 특징인 도시-국가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 알 수 있다.¹¹⁾

도시-국가 형태의 특징을 지닌 가나안 사회¹²⁾는 후기 청동기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 시기 특징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투트모세 3세의 원정으로 가나안은 이집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 여파로 예루살렘도 후기 청동기 시대 말까지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다.¹³⁾

최근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아카드어로 쓰여진 서신 일부분은¹⁴⁾ 중앙산악 지역에서 세겜과 함께 예루살렘이 중심적 도시였음을 알 수 있고¹⁵⁾ 아마도 그 영향력은 중앙산악 지역의 남쪽까지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나안 사회 내 예루살렘의 중심적 역할이 언제까지 이어졌는가는 확실히 알 길이 없다. 청동

-
- 10) Hillel Geva, "Jerusalem: The Early Periods and The First Temple Period" E. Stern (ed.)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3), 698-702. Eilat Mazar, *The Palace of King David: Excavations at the Summit of the City of David. Preliminary Report of Seasons 2005-2007* (Jerusalem and New York: Shoham Academic Research and Publication, 2009), 10-35.
 - 11) Rony Reich/Eli Shoukron/O. Lerman, "Recent Discoveries in the City of David,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Journal* 57 (2007), 156-163.
 - 12) 발굴을 통해서 알려진 예루살렘의 유물은 다른 가나안 도시들에서 발견된 것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에 청동기 시대의 예루살렘은 가나안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 주민들이 가나안의 대표적 원주민 가운데 하나인 여부스족이라고 말하고 있다(수 15:8, 63; 18:28; 사 1:21; 19:10; 삼하 5:6, 8; 24:16, 18; 대상 11:4-6; 21:15, 18, 28; 대하 3:1).
 - 13) Amihai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0), 232-294.
 - 14) E. Mazar/W. Horowitz/T. Oshima/Y. Goren, "A Cuneiform Tablet from the Ophel in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Journal* 60/1 (2010), 4-21.
 - 15) 이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도시의 크기와 무관하게 역사문서를 통하여 알려진 예루살렘의 모습으로서, 고고학적 발견물을 바탕으로 그 도시의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한 경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Nadav Na'aman, "The Contribution of the Amarna Letters to the Debate on Jerusalem's Political Position in the Tenth Century B.C.E.", *Bulletin of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04 (2006), 17-27.

기 시대 말까지 예루살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역사 문헌도 발견되지 않으며, 발굴을 통하여 알려진 후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 가운데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케년¹⁶⁾이 발견한 건물이 이 시기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건물이 왕궁이나 행정상의 역할을 보여주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¹⁶⁾ 에일랏 마자르의 발굴에서 알려진 사이프러스 토기와 미케네 토기 일부, 최근 채 작업을 통하여 가나안 채색 토기와 함께 발견된 미케네 토기 등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예루살렘은 단지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까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서의 사사 시대(초기 철기 시대)의 예루살렘은 침묵의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고학적 모습도 매우 빈약하다. 이 시기의 지층으로 알려진 지층 15가 발굴 지역 곳곳에서 알려졌지만, 어떠한 도시의 모습이나 의미 있는 건물 또는 유물을 드러내 주지 못하고 있다.¹⁷⁾ 한편 에일랏 마자르의 발굴에서 알려진 목 기 향아리는 비록 발견된 문맥은 후대 시대이기는 하지만¹⁸⁾ 그 형태로 보았을 때 이 시기의 것으로 알려지는데 초기 철기 시대의 중앙 산악지역의 정착지역에서 발견되는 것과 일부 동일한 문화를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예루살렘 내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그녀는 이 시기 예루살렘은 아마도 가나안 시대의 요새화 시설을 계속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¹⁹⁾

5. 예루살렘의 물질문화 변화

예루살렘에서도 가나안 물질문화의 연속성과 이스라엘인들이 가져온 문화

16) Hillel Geva, *위클리* (1993), 699-702.

17) Hillel Geva, *위클리* (1993), 702.

18) Eilat Mazar, *위클리* (2009), 62.

19) Eilat Mazar, *위클리* (2009), 13, 36-42.

로의 불연속성이 함께 나타남에도 불구하고,²⁰⁾ 예루살렘의 물질문화는 크게 가나안 문화에서 이스라엘 문화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가나안 시대의 특징적인 짚을 지닌 가옥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토기 등의 유물을 살펴보면 대역의 가나안 도시들이 지녔던 물질문화들이 청동기 시대의 지층에서 알려졌다.²¹⁾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인들의 거주하였다는 모습은 G지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4방 가옥의 거주터, 성서에서 이스라엘인들의 이름이라고 여겨지는 인장들의 발견, 케테프 힌놈에서의 성서구절을 담고 있는 은으로 된 장신구(silver amulet), 동시대의 남유다 지역에서 발견되는 토기를 포함한 동일한 물질문화 등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산헤립의 연대기 등 역사 문헌에서도 예루살렘에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왕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다.

가나안 문화는 다윗 시대의 정복과 정착 시대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아래 참조).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주전 10세기경의 것으로 여겨지는 제대와 이 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의 바알상의 일부는 가나안 문화의 잔상을 보여준다.²²⁾

6. 예루살렘의 요새화와 행정화

발굴된 장소에서 요새와 행정 시설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는 그 장소의 정치-

20) Nava Panitz-Cohen, *Process of Ceramic Change and Continuity: Tel Batash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A Test Case*. Unpublished Ph.D. diss.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06).

21) Eilat Mazar, *유클* (2009), 31-35.

22) Yigal Shiloh, *유클* (1984), Figs. 29:2, 29:3. 이것이 이스라엘인들이 정복한 이후의 것이 아니라 계속된 가나안인들의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성서에 따르면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전해진다(삼상 5장). 만약 이 성서 전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이 주전 10세기 초반에 이스라엘인들의 도시가 되었다고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그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Andrew G. Vaughn/Ann E. Killebrew, *Jerusalem in Bible and Archaeology: The First Temple Period* (Leiden: Brill, 2003)에 실린 학자들의 글들을 보라.

사회적 모습과 연관이 있다. 중기 청동기 시대의 각 장소에서 발견된 성문과 성벽과 궁전 등은 그들이 각각 도시-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 조직은 후기 청동기 시대까지 계속되어 왔다.

예루살렘에 중기 청동기 시대에 거대한 돌들로 인하여 요새화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최근 발굴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라이히와 슈크론에 의한 발굴에서 드러난 기혼 샘을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벽으로 보호하였으며 이와 함께 예루살렘은 요새화 시설을 갖춘 도시 국가의 모습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²³⁾

이후 언제 다시 예루살렘이 요새와 공공시설을 갖춘 도시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는가? 성서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수도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면 요새화 시설과 더불어 행정화를 증거하는 궁전, 창고 등의 공공건물과 함께 인장이나 비문 등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주전 8세기경의 거대한 성벽 이전에 예루살렘은 요새화 시설을 갖추었는가? 주전 8세기 이전에 문서 활동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가? 예루살렘에 언제부터 궁전 등의 공공시설이 건설되었는가? 등의 질문은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구약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기술 내용이 어느 시대를 반영하는가와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이 국가의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은 후기 철기 시대 초 즉, 통일왕국 시대였다고 주장되어왔다.²⁴⁾ 그러나 이른바 저연대 주장자

23) Rony Reich/Eli Shoukron/O. Lerna, *윗글* (2007), 156-163.

24) 앤슨 레이니/스티븐 노틀리, *윗글* (2010), 208-249. 이전의 의견에 대해서는 Amihai Mazar, "Archaeology and the Biblical Narrative: The Case of the United Monarchy", R.G. Kratz/H. Spieckermann, (eds.) *One God-One Cult-One Nation: Archaeological and Biblical Perspectives* (De Gruyter, 2010). Footnote #2. 한편 성서와 성서 외적 자료와 고고학적 자료로 확인되는 시삭의 원정에 따르면, 이집트 군대가 중앙산악지역에 올라왔으며 원정 목록에 예루살렘에 빠져 있다. 그러나 투트모세 3세, 아멘호텝 2세, 세티 1세, 람세스 2세, 메렌프타 등, 이전 시대 어느 바로도 중앙산악지역으로 원정한 사실이 없지만 시삭만 원정하였다는 사실은 그 당시 침략할 만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실체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또한 네게브 지역으로의 군사파견 기록과 주전 10세기경 네게브 지역의 고고학적 유적 발견 등은 통일왕국 시대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을 지지한다. 강후구, *윗글* (1984), 161-170. 핀켈슈타인은 시삭의 침

들은 한편으로 역사비평적 접근으로 성서를 이해하여 성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은 편집될 당시의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한편 고고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을 때 예루살렘은 주전 8세기 이전에는 수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서에서 주전 10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기술들은 모두 주전 8세기와 그 이후 시대의 투영이라고 주장한다.²⁵⁾

이 의견에 대하여 카힐과 마자르 등의 학자는 고고학적인 발굴결과들은 예루살렘이 온전히 발전된 수도의 모습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코 주전 10세기의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²⁶⁾ 이는 계속되는 정작으로 인한 이전 시대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²⁷⁾

오펔 지역과 G 지역에서의 최근 발굴 결과는 저연대 주장자들보다는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는 이들에 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갈 쉴로에 의하여 주전 10세기 때의 것으로 산등성이 위쪽에 큰 건물을 세우기 위한 버팀벽 역할을 한 계단식 구조물(Large Stepped Structure)은 통일왕국 시대의 면모를 보여주는

공을 네게브 지역은 텔 마소스 세력과 연결시켰고, 북쪽 지역은 텔 므깃도와 연결시킨 역사 해석을 시도하였다 (Israel Finkelstein, "The Campaign of Shoshenq I to Palestine: A Guide to the 10th Century BCE Polity", *Zeitschrift des Deutschen Palästina-Vereins*, 118/2 (2002), 109-135). 그러나 그는 이 논문의 주된 주장인 텔 므깃도 지층 VIA가 시삭의 침공에 의한 파괴 지층이라고 하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적으로 인정하였다 (2013년 SBL Annual Meeting 학회). 이는 그의 시삭 침공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이 그릇된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

- 25) David Ussishkin, "Solomon's Jerusalem: The Text and the Facts on the Ground", Andrew G. Vaughn/Ann E. Killebrew, *Jerusalem in Bible and Archaeology: The First Temple Period* (Leiden: Brill, 2003), 103-116. 이스라엘 핑클스타인/닐 애셔 실버먼,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오성환역) (서울: 까치, 2002), 153-178. 특히 164-165을 보라. 원저는 Israel Finkelstein/Neil A.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New York: Free Press, 2001).
- 26) Jane Cahill, "Jerusalem at the Time of the United Monarchy: The Archaeological Evidence", Andrew G. Vaughn/Ann E. Killebrew, *Jerusalem in Bible and Archaeology: The First Temple Period* (Leiden: Brill, 2003), 13-80. Amihai Mazar, "Jerusalem in the 10th Century B.C.E.: The Glass Half Full" Y. Amit/E. Ben-Zvi/I. Finkelstein/O. Lipschitz, (eds.) *Essays on Ancient Israel in Its Near Eastern Context: A Tribute to Nadav Na'aman*.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255-272.
- 27) 강후구, *윗글* (2014), 32.

것으로 주장되었다. 그 위쪽을 2005년도부터 발굴하여 돌로 된 큰 건물(Large Stone Structure)이 발견되었고 발굴자는 이 건물이 주전 10세기경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⁸⁾ 저연대 주장자들은 이 건물은 주전 10세기경의 것이 아니라 헬라 시대의 것이며 따라서 통일왕국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⁹⁾ 이 건물이 후대 시대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되기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건물의 벽이 이갈 설로에 의하여 주전 10세기경의 것으로 여겨진 계단식 구조물과 연결된다는 점, 계단식 구조물 아래에서는 초기 철기 시대의 토기만 발견되고 이 구조물 위쪽에서는 주전 10세기경의 토기가 발견되었다는 점, 비록 바닥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Locus 47에서 출토된 키프로-페니키아 토기 (Black-on-Red)가 발견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돌로 된 큰 건물의 북쪽으로 나와 있는 벽 W19이³⁰⁾ 캐서린 케넌이 발굴한 지역에서 나온 주전 10세기 때의 것으로 편년된 벽과 연결된다는 점 등은 이 건물이 헬라 시대의 것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없게 한다. 정확하게 집어서 그 연대를 설정할 수 없지만, 주전 10세기에 이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이 건물의 규모로 보았을 때 동 시대의 남부 레반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 중의 하나인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³¹⁾

예루살렘이 수도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글자이다. 지난 150년간의 발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모든 비문들은 주전 8세기 이후의 것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오펔 지역에서 발견된 주전 11-10세기경의 알파벳 비문은³²⁾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게 하였다.

28) Eilat Mazar, *The City of David Excavations 2005 at the Visitors Center Area* (Jerusalem: Shalem Press, 2007).

29) I. Finkelstein/Z. Herzog/L. Singer-Avitz/D. Ussishkin, "Has King David's palace in Jerusalem been found?", *Tel Aviv* 34 (2007), 142-164.

30) Eilat Mazar, *윗글* (2007), 59.

31) Amihai Mazar, "From 1200 to 850 B.C.E.: Remarks on Some Selected Archaeological Issues", L.L. Grabbe, (ed.) *Israel in Transition: From Late Bronze II to Iron IIa (c. 1250-850 B.C.E.)*. Volume 1. *The Archaeology* (New York: t&t clark, 2008), 106.

32) Eilat Mazar/David Ben-Shlomo/Samuel Ahituv, "An Inscribed Pithos from the Ophel, Jerusalem".

큰 저장용 항아리 구연부 아랫부분에 새긴 것은 글자이며 그 형태로 보았을 때 초기 철기 시대의 가나안어의 특성을 지녔다. 이 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지만,³³⁾ 이 글이 큰 저장용 항아리(pithos)에 적혀 있고, 글자가 쓰여진 항아리와 함께 다른 항아리들도 함께 발견되어 이는 조세와 연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7. 예루살렘의 크기

이갈 실로는 예루살렘을 발굴한 후 발굴 결과를 토대로 역사 흐름에 따른 예루살렘 크기의 변화를 제시하였다(아래 그림 1). 그에 따르면, 기혼샘을 중심으로 후기 청동기 시대까지 정착이 이루어졌고(1번)³⁴⁾ 주전 10-8세기경은 좀더 커져서 오펔 지역과 성전산까지 포함하는 동으로 기드론 골짜기, 남으로 힌놈 골짜기, 서로 티로포에온 골짜기로 둘러싸인 남북으로 긴 모양의 도시를 갖추었다(2번). 이후 주전 8세기 경 서쪽 지역까지 포함하는 비교적 큰 도시를 이루었고(3번) 바벨론에 의한 파괴 이후 예루살렘은 다시 작아져서 주전 10-8세기경의 후기 철기시대의 예루살렘 크기로 축소되었다(4번).³⁵⁾

최현준은 다윗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의 예루살렘의 크기 변화를 연구하여 유사한 결론을 내렸는데, 주전 8-7세기경의 예루살렘 성벽 확장은 앗시리아의 산헤립의 서부 원정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³⁶⁾

Israel Exploration Journal 63 (2013), 39-49.

33) Eilat Mazar/David Ben-Shlomo/Samuel Ahituv, 윗글 (2013), 45. Gershon Galil, "'yyn hql' The Oldest Hebrew Inscription from Jerusalem", *Strata* 31 (2013), 11-26.

34) 최근까지 오펔 지역과 기브아티 지역에서 이루어진 발굴 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결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성전산과 오펔 지역의 채 작업에서 나오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은(<http://tmsifting.org/en>, 2018년 1월 26일 접속) 성전산 지역에 가나안인들이 거주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후기 청동기 시대에도 주전 10세기경부터 크기의 도시를 갖추었을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35) Yigal Shiloh, 윗글 (1984), Fig. 34.

36) 최현준, "예루살렘의 성벽 확장: 다윗에서 느헤미야까지", *신학과 문화* 제 22집 (2013), 35-51. 이 논문은

발굴에 의하여 나타난 후기 철기 시대의 예루살렘의 큰 변화는 서쪽 지역으로의 확장이다. 티로포에온 골짜기 서쪽 지역의 B. 마자르와 아비가드의 발굴 그리고 최근 서쪽벽 지역에서의 발굴 등은 주전 8세기 경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이 확장되었고 너비 약 7미터의 돌로 된 성벽으로 요새화되었다.³⁷⁾ 이 성벽과 관련된 토기들은 주전 8세기경의 것으로 이 성벽 건설은 산헤립의 원정 결과라기보다는 원정에 대비한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북이스라엘 멸망 전후 북이스라엘의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확장되었고, 거대한 요새 시설은 앗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까지의 모든 발굴을 종합해보건대, 주전 8세기 경 앗수르 또는 다른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한 파괴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 유일한 파괴 지층인 지층 10은 토기 형태와 인장 등의 물질문화를 종합해 볼 때 주전 586년도 바벨론에 의한 파괴로 해석된다. 파괴 범위는 예루살렘 전반에 걸쳐 일어났다. 오벨 지역, 다윗성 G 지역, 남쪽 지역, 서쪽 지역 모두 바벨론 파괴 지층을 드러내고 있어 바벨론인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⁸⁾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티로포에온 골짜기까지의 도시로는 유입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도시는 서쪽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고 정착지 개발과 함께 앗수르 침입대비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갈 실로의 연구 이후에 적지 않은 고고학적 발굴결과가 있었지만 2013년도에 출판된 이 글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 37) Magen Broshi, "The Expansion of Jerusalem in the Reigns of Hezekiah and Manasseh", *Israel Exploration Journal* 24 (1974), 21–26. Amihai Mazar, *윗글* (1990), 417–424.
- 38) Eilat Mazar, *윗글* (2009), 67–71. Yigal Shiloh, *윗글* (1984), 10, 14, 18–20, 29. Yigal Shiloh, "Jerusalem", Ephraim Stern, (ed.)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3), 708–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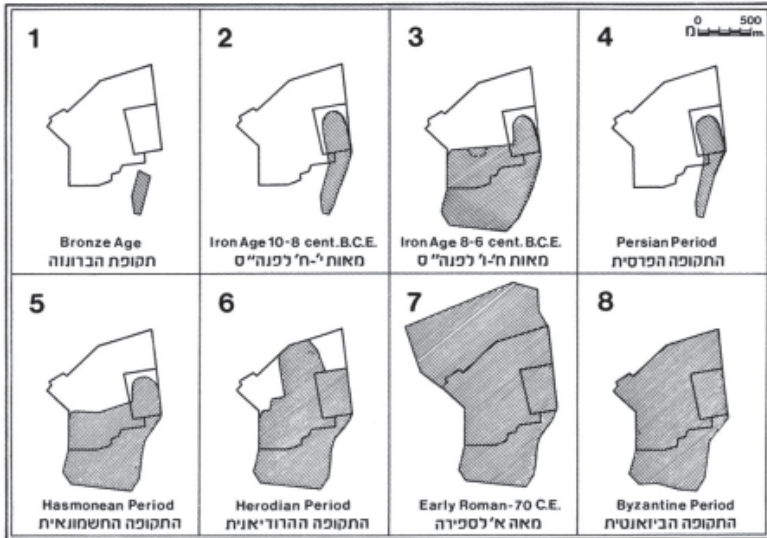


그림 1. 시대에 따른 예루살렘 크기의 변화 (Yigal Shiloh, 윗글 (1984), Fig. 34)

8. 예루살렘의 외부와의 관계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중앙 산악지역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결코 고립된 장소가 아니었다. 가나안 시대의 지중해 지역의 토기들(미케네 토기, 사이프러스 토기등)과 최근 발견된 아카드어 문서 등은 이 시기부터 이미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의 도시-국가가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발굴을 통하여 후기 철기 시대 지층에서 알려진 가나안 바알상과 제대(chalice), 아세라 상이라고 여겨지는 신상들, 동물 형상 등은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 다른 장소들과 유사하게 가나안 문화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인들의 예루살렘은 국제적 관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이프러스-페니키아 토기들이 수입되

어 사용되었고, 곳곳에서 발견되는 아스돗 토기는 블레셋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특별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떤 아스돗 토기는 형태와 장식은 일반 아스돗 토기와 유사하지만 만든 진흙재료는 블레셋 지역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것이어서 블레셋의 토기를 모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적대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의 물질문화를 일부 흡수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⁹⁾ 마치 막으로 바위를 깎아 만든 물저장고에서 나온 흙들을 채질하여 알려진 물고기 뼈들의 분석을 살펴보면, 어떤 것은 지중해와 홍해, 심지어 나일강의 물고기 뼈라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나온 토기들은 주전 9-8세기경의 것이어서 이 시기 어류 소비를 위하여 이 지역과 연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⁰⁾

9. 결론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지난 150년간의 고고학적 연구로 인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알려졌다. 고고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예루살렘은 지금까지의 집약적인 고고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정착 활동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한 파괴 지층(지층 10)을 제외하고 이전 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발견된 이전 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후대인들이 계속 사용하였던지, 거대한 유적이어서 파괴시킬 수 없었던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지만 보존된 채 남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고고학적 연구는 바벨론 파괴 이전 시대에 대한 과거 복원은 고고학적 자료만으로는 매우 힘들며 따라서 비판적 견지에서 성서와 역사 자료 등과 함께 고찰해야 한다.

39) A. Cohen-Weinberger, N. Szanton and J. Uziel, 2017. Ethnofabrics: Petrographic Analysis as a Tool for Illuminating Cultural Interactions and Trade Relations between Judah and Philistia during the Iron Age II. *Bulletin of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77: 1-20.

40) R. Reich and E. Shoukron, *op. cit.* (2009), pp. 156-163.

둘째, 예루살렘에 가나안인들의 문화가 발견되어 그들이 거주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성서 외에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을 당시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은 예루살렘이 원래부터 이스라엘인들의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진다. 성서가 기술하고 있는 바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인들의 왕국의 수도가 되기 이전에 가나안인들의 도시였다. 성서에서는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한 이스라엘인을 통하여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성서는 예루살렘을 별칭으로 다른 이름 즉 다윗성이라는 이름이 부과되었고 이 기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삼상 5:6-9).

셋째,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가나안인들의 문화에서 이스라엘인들의 문화로 변화되었다. 고고학적인 연구결과만을 보았을 때 민족의 변화를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시점을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 만약 성서의 기술에 도움을 받아 후기철기시대 초 즉, 주전 10세기경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인들의 물질문화를 끊지 않고 수용하면서 정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예루살렘은 시대에 따라 그 크기가 변화하였다. 만약 가나안 시대에서 다윗 시대까지 성전산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시기 오텔 남쪽 지역까지 약 4헥타아르에 해당하는 크기의 도시였고, 솔로몬 시대부터 주전 8세기 하반기에는 성전산까지 약 12헥타아르 크기였으며, 히스기야 시대부터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까지는 약 70-75헥타아르에 이르는 거대 도시를 이루었다. 바벨론에 의한 파괴 이후 예루살렘은 크기가 솔로몬 시대-주전 8세기 하반기 때의 모습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도시의 크기는 사회조직의 변화 요인보다는 역사적 사건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크기가 변하였지만 수원지인 기혼샘이 제외된 적은 없었다는 점이다. 기혼샘이 제외된 것은 솔레이만 대제 시기 세워진 예루살렘 구시가지 때인데, 물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도시 크기 변화에 따라 지역 이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중앙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역사-고고학적인 발견 물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되지 않고 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집트, 페니키아, 사이프러스 등의 지역과 관계를 맺었고, 물고기 뼈 등은 홍해지역과 연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홍해 지역을 통한 무역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케 한다. 한편 최근 예루살렘 발굴을 통하여 알려진 토산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스돗 토기 등은 블레셋과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물질문화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서로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사회조직의 변화는 후기 철기 시대 초 즉, 주전 10세기경에 일어났다. G지역의 계단식 구조물과 최근 발견된 큰 석조 건물과 오펀 지역의 비문 등은 예루살렘이 주전 10세기 때부터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저연대 주장들의 접근 방법인 최소주의적으로 고고학적 발견물을 접근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10. 참고문헌

강후구, 「성서와 고고학: 이스라엘 정착부터 시삭 침공까지」(서울장신대출판부, 2014).

앤손 레이니/스티브 노틀리. 「성경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강성열역), (서울: 이레서원, 2010), 63-68, 72. 원제 Anson F. Rainey/R. Steven Notley, *The Sacred Bridge* (Jerusalem: Carta, 2006).

이스라엘 핑켈스타인/닐 애셔 실버먼,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오성환역) (서울: 까치, 2002). 원제 Finkelstein, I./Silberman, Neil A., *The Bible Unearthed* (New York: Free Press, 2001).

이창엽,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울(대상: 9:35-38, 참조 대상 8:29-32)”, 「구약논단」 20권 2호 (2014년 6월), 73-93.

- 최현준, “예루살렘의 성벽 확장: 다윗에서 느헤미야까지”, 『신학과 문화』 제 22집 (2013), 35-51.
- 홍국평, “북이스라엘 난민 유입 가설 재고: 성서 문헌의 형성사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 3호 (2012년 9월), 181-206.
- Broshi, M. “The Expansion of Jerusalem in the Reigns of Hezekiah and Manasseh”, *Israel Exploration Journal* 24 (1974), 21-26.
- Cahill, J. “Jerusalem at the Time of the United Monarchy: The Archaeological Evidence”, Vaughn, Andrew G./Killebrew, Ann E. *Jerusalem in Bible and Archaeology: The First Temple Period* (Leiden: Brill, 2003), 13-80.
- Cohen-Weinberger, A./Szanton, N./Uziel, J. “Ethnofabrics: Petrographic Analysis as a Tool for Illuminating Cultural Interactions and Trade Relations between Judah and Philistia during the Iron Age II”, *Bulletin of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77 (2017), 1-20.
- Finkelstein, I. “The Campaign of Shoshenq I to Palestine: A Guide to the 10th Century BCE Polity”, *Zeitschrift des Deutschen Palästina-Vereins*, 118/2 (2002), 109-135.
- Galil, G. “׳יִנְיָ הִלְק׳ The Oldest Hebrew Inscription from Jerusalem”, *Strata* 31 (2013), 11-26.
- Geva, H. “Jerusalem: The Early Periods and The First Temple Period”, Stern, E. (ed.)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3), 698-716.
- Mazar, A.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0)
- Mazar, A. “Jerusalem in the 10th Century B.C.E.: The Glass Half Full”, Amit, Y./Ben-Zvi, E./Finkelstein, I./Lipschitz, O. (eds.) *Essays on Ancient*

- Israel in Its Near Eastern Context: A Tribute to Nadav Na'aman*.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255-272.
- Mazar, A. "From 1200 to 850 B.C.E.: Remarks on Some Selected Archaeological Issues", Grabbe, Lester L. (ed.) *Israel in Transition: From Late Bronze II to Iron IIA (c. 1250-850 B.C.E.). Volume 1. The Archaeology*. (New York: t&t clark, 2008), 86-120.
- Mazar, A. "Archaeology and the Biblical Narrative: The Case of the United Monarchy", Kratz, R.G./Spieckermann, H. (eds.) *One God-One Culture-One Nation: Archaeological and Biblical Perspectives* (De Gruyter, 2010), 29-58.
- Mazar, E. *The Excavations in the City of David in 2005* (the Visitors Center). (Jerusalem: Shoham Press, 2007).
- Mazar, E. *The Palace of King David: Excavations at the Summit of the City of David. Preliminary Report of Seasons 2005-2007* (Jerusalem and New York: Shoham Academic Research and Publication, 2009).
- Mazar, E./Horowitz, W./Oshima, T./Goren, Y. "A Cuneiform Tablet from the Ophel in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Journal* 60/1 (2010), 4-21.
- Moran, W.L. *The Amarna Letters* (Batimore/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 Na'aman, N. The Contribution of the Amarna Letters to the Debate on Jerusalem's Political Position in the Tenth Century B.C.E. *Bulletin of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04 (1996), 17-27.
- Panitz-Cohen, N. *Process of Ceramic Change and Continuity: Tel Batash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A Test Case*. Unpublished Ph.D. diss.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06).
- Reich, R./Shoukron, E./Lemau, O. "Recent Discoveries in the City of David,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Journal* 57 (2007), 156-163.

- Shiloh, Y. *Excavations at the City of David I. 1978-1982. Interim Report of the First Five Seasons*. Qedem 19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84).
- Shiloh, Y. "Jerusalem", Stern, E. (ed.)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3), 698-716.
- Ussishkin, D.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1982).
- Ussishkin, D. "Solomon's Jerusalem: The Text and the Facts on the Ground", Vaughn, A. G./Killebrew, A. E. *Jerusalem in Bible and Archaeology: The First Temple Period* (Leiden: Brill, 2003), 103-116.

검색어

예루살렘

다윗성

가나안

이스라엘

예루살렘 크기

Archaeological Research on Jerusalem of the Old Testament Period

Hoo-Goo Kang,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Seoul Jangsin University

Since Donald Trump's proclamation on December 6, 2017 that Jerusalem is the capital of the state of Israel, Jerusalem gained again the political focus of the people around the world. His announcement raised a question, "Whose city is Jerusalem?" and it ushered in another question, "Whose city was Jerusalem?" This paper aimed to give an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based on archaeological results from previous and ongoing expeditions to Jerusalem, and it concluded as follows: (1) Albeit intensive research,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Old Testament periods at Jerusalem is in scarcity. Therefore, it is hard to reconstruct the life and culture of the city based on archaeological source only and thu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not only biblical sources but also historical sources in critical positions. (2) The fact that the material culture of Jerusalem as well as historical documents indicate the Canaanites

www.kci.go.kr

settled down in the city of Jerusalem before the Israelites came, teaches us that Jerusalem was originally of the Canaanites. The biblical accounts do not negate it. On the contrary to the other cases, the name Jerusalem was not given to the Israelites from God. Instead, it was renamed as the city of David after he conquered it. (3) From the archaeological perspective, it is certain that material culture of Jerusalem was changed from that of the Canaanites to that of the Israelites. However, there is no direct archaeological evidence to display with certainty when the change occurred. If it did somewhere in the 10th century BCE, the Israelites did not reject the material culture of the Canaanites but rather admitted it. (4) The size of the city of Jerusalem has been changed throughout history. Such a change is originated from historical events rather than from the change of social organizations. Even so the main water source, Gihon spring, has never been excluded in the biblical periods. (5) The material culture of Jerusalem yielded the information that it was not isolated but had broad and wide relations with Egypt, Phoenicia, and Cyprus as well as the region of the Red Sea. Potteries such as Ashdod Ware found in recent excavations indicate that in spite of hatred relationship, the Israelites had communicated with the Philistines. (6) The stepped stone structure in Area G and the large stone structure uncovered right above it as well as the inscriptions found in Ophel expedition lead us to assume that Jerusalem could be the capital of the nation already in the 10th century BCE. Thus, the minimalist's approach to the material culture of Jerusalem taken by the so-called "Low Chronology" advocates, is not so convincing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the Israelites.

Keywords

Jerusalem

city of David

the Canaanites

the Israelites

size of Jerusalem

- 투고일: 2018년 3월 21일
- 심사일: 2018년 4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10일

www.kci.go.kr